

# 익산 보육 환경 만족도 큰 폭 증가

### 2023 사회조사... 문화예술 지출 전복 1위 · 보육 · 의료 등 일상 만족도 평균 상회

익산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보육 환경 만족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익산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실시한 '2023 사회조사' 결과 익산시민의 보육 환경 만족도가 불과 2년 만에 130.5%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지난해 익산시 미취학 아동의 보육 환경 만족은 52.1%로 2021년 실시된 같은 조사 결과(22.8%) 대비 두 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 전북 전체 평균인 50.8%보다 1.3%p 높은 수치다. 불만족의 경우 30%에서 11.8%로 크게 줄었다.

이는 익산시가 아동 정책에 행정력을 집중한 데 따른 결과인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아이가 태어나면 익산이 키운다'라는 가치를 내세우고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힘쓰고 있다.

실제 시는 자체 사업을 통해 각종 정부 지원 사업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에도 기저귀나 조제분유, 난임 시술비,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등을 빠짐없이 지원하는 혁신적 선도 정책을 펼쳐왔다.

이번 조사에서는 익산시민들의 여가 생활에 대해서도 들여다봤다. 익산시민들은 풍부한 문화·여가 생활을 통해 만족감 있는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개월간 문화예술 분야에 비용을 지출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41%로 전북 시군 중 가장 높아 익산시민의 높은 문화생활 관심과 참여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익산시 문화여가시설이 만족한다는 응답도 전북 평균을 상회했다.

지난 1년간 독서 경험이 있는 시민 비율은 38.1%로 전주시 다음으로 가장 높았고, 익산시민의 주말·공휴일의

하루 평균 여가 시간은 270.63분으로 역시 도내에서 두 번째로 길었다.

지역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불만족 응답이 8.8%에 그치는 등 대체로 만족하는 반응을 보였다. 시는 의대·치대·한의대를 모두 보유한 원광대학교를 중심으로 대형 종합병원과 상당수의 1차 의료시설 등 인구 대비 탄탄한 의료 기반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시는 또 올해부터 소아 아간 진료 의료기관 공백을 채우고자 원광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소아 진료 전문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함께 전북 첫 공공 산업재해 전문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이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시민 비율은 71.4%로 전북 평균인 67.9%보다 3.5%p 높아 전북 14개 시군 중 1위를 차지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고군산군도를 중심으로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각종 현안 논의 및 신규사업발굴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군산시 고군산군도 활성화 행정실무협의체'의 2024년 첫 회의가 지난 16일 열렸다.

## 고군산군도 관광 활성화 논의

### 군산시, 신원식 부시장 주재 행정실무협의체 첫 회의 개최

고군산군도를 중심으로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각종 현안 논의 및 신규사업 발굴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군산시 고군산군도 활성화 행정실무협의체'의 2024년 첫 회의가 지난 16일 열렸다.

신원식 군산시 부시장이 주재하고 시 15개 부서에서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고군산군도 개발 및 활성화와 관련된 부서별 사업 추진 상황과 부서 간 협조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 공유하였다.

특히, 2025년 전구간 개통 계획인 말도, 명도 방축도 명품 트레킹 코스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는 K-관광섬 육성사업으로 트레킹 샵터, 화장실, 숙소 등 기본 편의 시설 조성 및 섬마을 주민회화 및 도란도란 소리꾼 양성사업 등 서비스 기반 강화 사업을 우선 추진하여 트레킹코

스 개통과 함께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도록 부시간 지속 협력할 것을 논의하였다.

또한 시간여행마을 고군산군도, 은파호수공원, 금강호 권역별로 중장기적 활성화를 위한 관광개발 계획을 마련하고자 추진중인 '군산시 주요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기본구상 용역의 경과보고도 함께 진행했다.

신원식 군산시 부시장은 부서 간 업무 공유를 기본으로 협업·TF 활동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의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도록 각 부서장들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특히 용역 추진 시 전북특별자치도 '아간관광산업 육성' 특례 조항을 활용하여 원도심과 고군산군도를 경유하는 서해안권의 야간관광 거점 벨트를 조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추진전략 수립을 당부하였다.

/군산=김판곤 기자

## “악취 없는 도시 조성한다”... 익산시 시설 지원 나서

### 29일까지 악취방지시설 개선 지원 사업 신청 접수

익산시가 악취 없는 도시 조성을 위해 악취방지시설 개선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악취저감 종합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올해 총 5,000만 원을 투입해 악취방지시설 개선을 지원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사업은 탈취탑·축열식소각로(RTO)·전기집진시설 등 악취방지시설의 교체 또는 추가 설치를 지원하며, 설치금액의 90%(최대 5,000만 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사업 활성화 및 악취 저감을 위해 지난해 조례를 개정하고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제1·2 산업단지 및 산단 외 악취배출 시설이 포함된 더 많은 사업장이 혜택을 받게 됐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29일까지 환경관리과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또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람) 공공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사업 대상 확대로 다양한 산업 부문에서의 참여가 가능해졌다”며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동시에 도시 환경 개선에 기여해 더욱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악취물질 배출 감소를 목표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14개 사업장에 총 4억 400만 원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악취감소 및 생활환경 개선에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농업 경영안정 위해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익산시가 농업인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 100억 원의 규모의 농·림·축산업 분야의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나선다.

신청 접수는 상·하반기 연 2회 진행되며, 상반기 접수는 19일부터 29일 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바이오농업과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은 지역 농·축·원협에서 농가당 3억 원까지 대출 시 발생하는 6.5%의 대출이율에 대해 익산시가 4%를 지원

하는 사업이다. 최대 8년까지 지원되고 청년농업인은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시는 취약계층의 영농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영세농 및 여성농업인 등에 대해서는 대출이율의 1.625%만 농업인이 부담하게 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법인과 농업에 종사 예정인 시민(청년농업인, 귀농·귀촌 등)이다.

경종, 원예, 가공, 가축, 특용작물, 화

훼 등 농·림·축산업 분야에서 영농 활동을 위한 시설·장비 및 농기계 구입 등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농지·자동차 구입 등 자산 증식용 투자와 비료·농약·유류 구입 등 소모성 비용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위해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올해도 지원을 시작했다”며 “농가 경영안정과 소득 증대를 돕기 위해 다양한 영농활동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7기 창업 희망키움사업 청년 창업가 모집

군산시는 혁신적인 청년창업가를 발굴하고 일자리를 양성하기 위한 창업 희망키움사업(7기)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한다.

‘창업 희망키움사업’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창업 초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시장진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초기 투자비 500만원과 매월 100만원씩 최대 24개월 동안의 창업 경비를 지원하며, 창업 여건에 맞춘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지난 2019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3D 프린팅 통합 웹 포털 서비스 등 기술창업 분야를 비롯하여 로컬커피에 이터 등 다양한 분야의 초기 창업자 102명을 발굴 육성하였으며, 이번 모집을 통해 10명의 신규 창업자를 선발

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자신만의 창업 아이템과 아이디어를 가진 만9세 ~ 만39세 군산시 청년 중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는 예비창업자 또는 5년 미만의 기창업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예비창업자는 사업에 선정된 후 6개월 이내에 군산에서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선발된 청년에게 지원되는 초기투자비 및 창업활동경비는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창업 초기에 일정 매출이 발생하기 전까지 겪을 수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창업기업 정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 지역 소식통

### 익산시,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지원 대상 확대

익산시가 영유아 발달 장애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한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해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다.

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부담금 하위 80% 대상자만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이 폐지돼 건강보험료 가입자 전체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0세부터 6세까지 8차에 걸쳐 이뤄진다. 3차부터 8차까지는 발달평가가 포함되는데 발달평가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받은 경우 모두 정밀검사를 지원한다.

심화평가 권고는 발달장애 진단이 아니라 때때보다 느려 보여 전문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후 장애가 있다면 정밀검사를 통해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2024년 모바일 헬스케어 대상자 모집

군산시 보건소는 스마트폰 앱과 활동량계(스마트워치)를 통해 기록된 개인별 생활 습관을 모니터링하여 맞춤형 건강상담을 제공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참여할 시민 120명을 19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

대상자 선정요건은 만 19세 이상 군산시 거주자 및 직장인으로 건강관리에 관심이 있다면 참여 가능하다. 신규 참여자 혹은 △혈압 수축기 130mmHg 이상 85mmHg 이상 △공복혈당 100mg/dl 이상 △허리둘레 남90cm, 여85cm 이상 △중성지방 150mg/dl 이상 △HDL-콜레스테롤 남 40mg/dl, 여 50mg/dl 미만과 같은 건강위험요인을 1가지 이상 보유한 참여자를 우선 등록한다.

또한 이미 고혈압·당뇨, 이상지질혈증 진단을 받았거나, 해당 질환의 약물을 복용 중인 대상자는 제외된다.

본 프로그램은 사전 기초검진(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및 체성분 측정을 통해 참여 대상 여부가 결정되며 6개월 동안 진행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